성모 정원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안녕하세요. 주임신부 입니다.

이번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당에 성모 정원을 만들고, 또 하느님께 봉헌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 1월 1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심을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름으로써 드러내는 뜻깊고 거룩한 날에 성모 정원이 하느님께 봉헌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욱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Our Lady of Mercy 성당으로 옮겨오면서 우리는 많은 숙제를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성당 음향 시스템, 친교실 주방 수리, 엘리베이터 등 시설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주차장 이었죠. 주차장의 이곳 저곳은 움푹 파여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어려움과 위험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미국 공동체 역시 주차장을 새로 깔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작업과 공사를 시작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거쳐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모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주차장을 다시 건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어려분들의 도움과 기도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로 그 일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차장이 마무리 되고 난 후, 어느날 시설위원회를 통해 이제 다음 프로젝트로 무엇을 해야할지 의견이 올라왔고, 여러가지 시설 면에서의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모 정원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급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곳에서의 마지막 해라는 마음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이전부터 양 공동체에서 성모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우리 성당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꾸미고, 기도할 공간과 함께 친교를 나눌 공간이 밖에 마련될 수 있다면, 이 성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마무리 하고 나고 저는 성모 정원을 만드는 것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회장님이신 한상철 빈첸시오 회장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시설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성모 정원을 꾸미자고 말씀 하시나 보다고 생각했었지만, 회장님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우리 교우분들의 도움과 열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공동체 교우분들 역시 우리 성당의 이름인 Our Lady of Mercy 의 색깔이 성당에 입혀지길 바라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성모 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당연히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금 모금과 업체 선정 그리고 기도 봉헌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더욱 하느님 아버지께 매달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성당이 "우리 성당"이라는 마음으로 생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껏 신앙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쁘고 슬픈 기억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 5년간 지내며 경험한 우리 공동체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저력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하느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포 공동체가 지닌 특수한 상황과 특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당에 옮겨 온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시간도, 그리고 현재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의 모습도 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져왔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성당으로 옮겨갈 것 아니냐는 걱정과 불안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야 할 하느님의 약속이 있는 성당이라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곳 미국 공동체와의 생활도, 우리 공동체의 자체 생활도 달라지고, 또 그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 이 공동체를 하느님 뜻에 맞게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곧 하느님의 교회이고, 그분의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성모정원도 그렇게 우리가 일치한 결과입니다.

저역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이 공동체의 주임 신부로서 있지만, 항상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런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주님의 큰 은총입니다. 항상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인복이 많다구요. 여러분이 바로 저에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주임 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2023년 01월 01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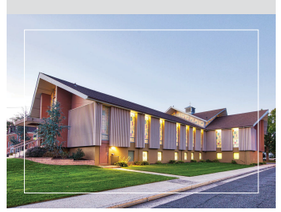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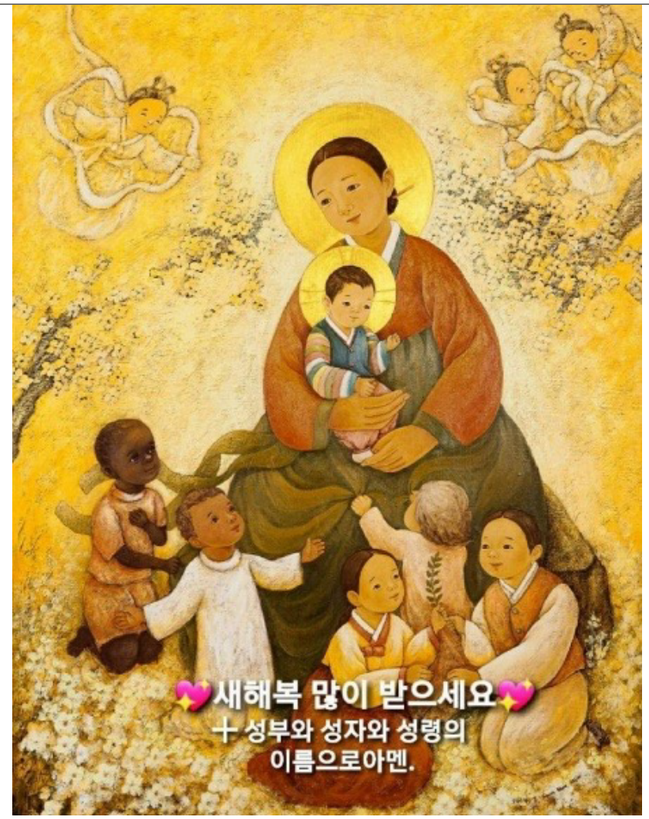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민수기6,22-2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4,4-7
# 복음 환호송	히브 1,1-2 참조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루카 2,16-21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다. 여드레 뒤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 성가번호	입당 237 봉헌 210 성체 165 파견 238

성 당 소 식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신용철(다니엘)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장인석(미카엘) – 가족
- 최용호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반석회, 전 글라라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과 윤 안젤라 – 올드브릿지 구역, 민규란(엘리자벳), 전 글라라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전 글라라
- 한상철(빈첸시오) – 채희백(바오로)
- 염은미(클라라) – 성순영(라파엘라)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 성순영(라파엘라), 박재영(요아킴)
- 이대우(베드로) 가족 – 성순영(라파엘라)
- 오용덕(헨리코) 가족 – 성순영(라파엘라), 박재영(요아킴)
- 허기욱(바오로) – 박재영(요아킴)
- 하준석(마태오) – 박재영(요아킴)
- 곽 유리안나 – 정 데레사, 성순영(라파엘라)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데레사) 가정 – 정 데레사, 이호용(프란치스코)
- 허정(아나스타시아) – 최정원(레지나)
- 문마린(마리나), 문마빈(비오) – 최정원(레지나)
- 이호용(프란치스코), 최정원(레지나) – 문마린(마리나) 가족
- 박락준(베드로), 이서형(요안나) – 문마빈(비오) 가족
- 은선, 철수, 베시, 크리스 – 박재영(요아킴)
- 정윤정(안젤라) 가정 – 정 데레사
- 정윤석(토마스) 가정 – 정 데레사
- 김성일(베드로), 정영선(플로라) – 한지혜(크리스티나)
- 나채국(제노), 김민주(이스베리가) 가정 – 박락준(베드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90명)..... $1,741
- 구유예물 $1,276
- 성탄감사헌금..... $2,224

최혜자	$50	김삼식	$50	김진	$100
최영옥	$100	손홍구	$100	김영필	$100
윤안젤라	$100	박화성	$100	최영찬	$100
오애희	$100	황태진	$100	서영원	$150
채희백	$200	박재영	$200	익명	$300
이문식	$500	이종실	$500		

- 교무금..... $1,050

김안나(7-12)	염기선(12)	정진오(7-12)
한상철(12)	곽유리안나(1-2)	

- 성모 정원 조성 기금..... $6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박화성(헬레나) 곽 율리안나

2차 헌금
- 1월 1일: Together in Charity
  메타천 교구 내 재정, 주택, 의료 분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개인 또는 가정)을 위한 기금 마련
- 1월 8일: 유틸리티

2023년 달력을 배부하오니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환송 및 서품 10주년 기념 미사
- 1월 8일(주일) 미사는 오전 10시로 변경됩니다.
- 미사 후에는 신부님 환송 및 서품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8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자원봉사자 모집
- 1월 8일 주일 미사 후 제대 구유 해체 작업과 1월 14일 토요일 9시 성당 외관 조명 해체 작업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1월 15일(일) 미사 후 친교실

2022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
- 1월 22일(주일)은 설날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커피 쿠폰 1장 구매시 $2
- 커피 쿠폰 12장 구매시 $20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민수 6, 25

바오로딸콘텐츠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민수기 6,22-27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4,4-7
형제 여러분,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2,16-21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 19)

바오로딸콘텐츠

성 모 정 원

성모정원 조성 후원안내
본당 주임 신부님의 사목지침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성모정원은 십자가 형태의 보도블럭 포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가 포함된 주요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유금액 헌금도 환영합니다.

주요 구성요소(헌금 기준액)
- 성모상($1,000 이상):성모성심 성모상
- 성모상 반석($500 이상):콘크리트 기초위 화강석 마감
- 좌우 날개벽($300 이상): 성모상 좌우 날개벽
- 묵주 표식($200 이상): 성모상 주변 묵주 표식
- 성 십자가 보도($100): 십자가형의 보도블럭 포장
- 벤치 (시중가): 묵상과 기도를 위한 벤치
- 공원 입구 기둥
- 조명등
- 기타 자유금액 후원
- 부분별 금액 전체를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1 현재 성모 정원 후원자 명단
- 성모 정원에 후원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CC Subtotal	$47,681
OLM Sutotal	$17,283
Total	$64,964

- 입구 기둥 ($3,600) – 낚시 동호회 어부들 마을

NAME	AMOUNT	NAME	AMOUNT	NAME	AMOUNT
2022 KCC 골프대회	$6,160	곽 율리아나	$300	이재구	$200
반석회	$5,000	김동근	$300	이종권	$200
채희백 가족	$5,000	나채국	$300	익명	$200
오용덕	$3,000	노스브런스윅	$300	최승웅	$200
박락준/이서형	$2,000	대건회	$300	최혜자	$200
한상철	$1,055	먼로 구역	$300	황분숙	$200
박미경	$1,000	백상헌	$300	곽신규	$100
오경선	$1,000	성낙순	$300	김 스텔라	$100
유스 & 주일학교	$1,000	성모회	$300	김 안나	$100
윤준희	$1,000	안현정	$300	김인영	$100
이대우	$1,000	유병기	$300	김인자	$100
익명	$1,000	육순재	$300	럿거스	$100
한철희/한지혜	$1,000	이광재	$300	박규희	$100
故송경애	$600	이스트브럭스윅	$300	방숙자	$100
손흥구	$600	익명	$300	썸머셋	$100
백영숙	$566	익명	$300	양영길	$100
김성일	$500	장수지	$300	양은희	$100
김영관	$500	강성기	$200	윤 안젤라	$100
박병태	$500	김삼식	$200	이막동	$100
박화성	$500	김순옥	$200	이희숙	$100
변태용	$500	김영필	$200	익명	$100
사우스브런스윅	$500	박재영	$200	익명	$100
서경호	$500	썸머셋	$200	임영자	$100
서정근	$500	오현주	$200	전광수	$100
손종철	$500	올드브릿지	$200	최영옥	$100
안을봉/안정임	$500	유근성	$200	추민수	$100
요셉회	$500	이 안나	$200	하연승	$100
이광호	$500	이용문	$200	하용무	$100